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이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Care on Children's Noncompliance

하지영(Ji Young Ha)[1)]
박성연(Sung Yun Park)[2)]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boys' and girls' noncompliance in ecological context. Observations were made of 62 children(34 boys and 28 girls, $\bar{x}$ = 44 months) enrolled in child-care centers. Mothers and caregivers complet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three way ANOVA.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noncompliance. There were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activity level, maternal rejection and responsiveness, quantity of child-care and boys' noncompliance. For girls, only activity level and quantity of child-care were related to noncompliance. The effects of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care variables on noncompliance varied by children's gender and temperament.

Key Words : 아동의 기질(children's temperament), 어머니의 양육행동(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보육경험(child-care experience), 불순응 행동(noncompliance).

Ⅰ. 서 론

아동이 성인의 요구와 기대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은 수많은 양육자들의 고민거리이자 학자들의 쟁점이 되어왔다. 이는 아동의 순응 행동이 사회의 행동 기준을 내면화하는 능력의 초석이 되며, 결국 사회화의 최종 목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Maccoby, 1992). 즉, 생애 초기에 순응 행동이 부족하면 이후의 인성 및 정서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영유아기의 불순응 행동이 이후의 공격성, 문제행동, 비행 등의 선행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1)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2)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g Yun Park,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종단 연구에서 입증되어 왔다(Chen, Li, Chen, & Liu, 2002; Forehand & Long, 1991;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Shaw, Keenan, & Vondra, 1994). 따라서 어린 시절의 불순응 행동은 이후 발달의 전조가 되므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불순응 행동(noncompliance)이란 일반적으로 순응 행동(compliance)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즉, 순응 행동이란 성인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이며, 불순응 행동은 이와 반대로 성인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무시 행동과 언어 및 신체적 거부, 분노 발작, 공격 행위와 같은 성인의 권위에 대한 반항 행동을 포함한다(김미정, 2001; Barkley, 1997; Vandell, Henderson, & Wilson, 1988).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불순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된다. 우선 개인적 변인으로 아동의 성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순응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혜경 · 조복희, 1999; Chen 등, 2002; Kuczynski & Kochanska, 1990; Maccoby & Jacklin, 1974; Schneider-Rosen & Wenz-Gross, 1990). 이러한 성차는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남아에게는 독립성을 격려하는 반면, 여아의 행동에는 많은 제한을 두고(Power, 1985; Power & Parke, 1986), 특히 자기 조절이나 복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더 많이 가하는(Kochanska & Aksan, 1995; Maccoby, 1990) 등 성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 과정에 기인할 수 있다.

또 다른 개인적 특성으로 아동의 연령을 들 수 있는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여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Kopp, 1982; Whiting & Edwards, 1988). 그러나 생후 2년이 되는 시기는 'terrible two'로 알려져 있듯이 불순응 행동이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Edwards, 1995; Schneider-Rosen & Wenz-Gross, 1990). 이 시기의 아동은 운동 및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율성을 나타내고 부모에게 도전하게 되는 한편(Schaffer & Crook, 1980), 부모는 자녀에게 일정한 행동 기준을 가르치려 노력하게 되므로 아동의 불순응 행동은 일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Maccoby, 1990).

한편, '반응성(reactivity)'과 '정서조절(self-regulation)'을 토대로 한 Rothbart와 Derryberry (1981)의 기질 이론은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의 이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즉, 부정적 반응성(negative reactivity)이 높은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요구에 대해 자발적인 순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Braungart-Rieker, Garwood, & Stifter, 1997), 영아기에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없다면 걸음마기에 부모의 요구에 잘 순응하지 못하여, 회피하거나 반항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Stifter, Spinrad, & Braungart-Rieker, 1999)는 이러한 기질 특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 외에도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은 양육환경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다르게 발달할 수 있다. 양육환경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중요한 요인으로, 어머니가 반응적이고 민감할수록 아동이 순응적으로 자라며(Londerville & Main, 1981; Martin, 1981; Parpal & Maccoby, 1985; van der Mark,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2), 이러한 조화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아동이 모든 성인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협력하게 된다(Belsky, 1990). 반면 권력 행사나 신체적 처벌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불순응적인 경향이 있다(Braungart-Rieker 등, 1997; Feldman & Klein, 2003; Kochanska

& Aksan, 1995; Rothbaum & Crockenberg, 1995). 그러나 양육행동이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어(Grusec & Goodnow, 1994; Martin, 1981), 양육행동과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행동 외에도, 보육경험은 아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특히 보육경험과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는 최근 보육효과와 관련하여 상당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즉, 이른 시기의 보육경험이 불순응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Belsky & Eggebeen, 1991; Rubenstein, Howes, & Boyle, 1981; Schwarz, Strickland, & Krolick, 1974; Thornburg, Pearl, Crompton, & Ispa, 1990), 가정에서 양육된 아동과 보육기관을 이용한 아동의 불순응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Macrae & Herbert-Jackson, 1976; Matlock & Green, 1989; Prodromidis, Lamb, Sternberg, Hwang, & Broberg, 1995; Sternberg, Lamb, Hwang, Broberg, Ketterlinus, & Bookstein, 1991). 이와 같은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는 보육경험의 유무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보육 시작시기, 보육 이용시간, 보육의 질 등 보다 다양한 보육경험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육 시작시기 또는 보육 이용시간이 아동의 불순응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가족과정을 통해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애착 연구자들은 애착 안정성이 불순응 행동과 관련됨을 입증하였다. 예를 들어, 아기가 생후 1년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취업하는 경우(Belsky & Rovine, 1988), 또는 보육경험의 양이 많을수록(김숙령, 1997), 영아는 어머니에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어머니와 안정적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동이 불순응하기 쉽다고 한다(Farber & Egeland, 1982; Londerville & Main, 1981).

또한, 보육기관에서 경험하는 질적 수준이 보육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중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우수할수록 아동이 더 순응적이고 자기 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wes & Olenick, 1986; Vandell, Henderson, & Wilson, 1988). 보육의 질은 크게 구조적(structural) 요인과 과정적(process) 요인으로 나뉘는데, 구조적 요인에는 집단크기, 교사 대 아동비율, 보육교사의 안정성, 교육수준, 교사로서의 전문화된 준비성 및 재교육과 같은 요인이 포함되며, 과정적 요인으로는 보육교사의 민감한 반응성, 교사-동료-부모-아동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발달적으로 적합한 행위와 경험 제공 등이 포함된다(McMullen, 1999). 특히 불순응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의 질에서 비롯되는 행동으로 파악되므로(Sternberg 등, 1991),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곽주영과 이영(1997)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즉각적이고 민감하며 반응적일수록, 아동이 교사의 지시나 제안을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수용적이고 관대하며, 통제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아동이 교사에게 적극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보이며(Phyfe-Perkins, 1981), 특히 아동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보육교사가 부드러운 통제를 사용할수록 아동이 순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eldman & Klein, 2003).

한편, 보육경험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는 성차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보육경험에 의해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쉽다(김숙령, 1997; Belsky & Rovine, 1988). 유사한 맥락에서 Howes와 Olenick(1986)은 남아

의 경우 보육경험의 영향에 민감하여 보육의 질이 우수할 때 자기 조절을 잘 하고 실험 과제 상황에서 덜 저항적이지만, 여아의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육경험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력은 양육행동과 같은 가족 변인의 영향력보다는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sky, 1997; NICHD, 1998). 즉, 아동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또는 얼마나 질 좋은 보육을 경험하는가보다는 가족 체계에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스웨덴의 Göteborg 연구(Prodromidis 등, 1995; Sternberg 등, 1991)에 의하면 보육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우수한 질의 양육을 제공하는가가 아동의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보육경험이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매개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즉, 생후 1년 이내에 주당 20시간 이상의 보육을 경험하면 3세에서 8세가 되었을 때 어른에게는 불순응적이고 또래에게는 공격적으로 된다고 하여 '위험 요인(risk factor)'으로 규명한 Belsky (1988, 1997)는 아동이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으로 되기 쉽고, 따라서 아동이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육경험의 잠재적 효과(sleeper effect)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NICHD, 1998), 양육행동 외에도 보육경험이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의 발달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Bronfenbrenner(1979)가 '생태학적 체계 모델(ecological systems model)'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Wachs와 Gruen(1982)의 '유기체 특수성(organismic specificity)' 가설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기질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는 가설로서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Crockenberg(1987)는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영아는 그렇지 않은 영아에 비해 부모가 화를 잘 내고 처벌을 자주 가하게 되면 이후에 불순응적이며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보육경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기질은 보육교사로부터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 또한 달라지게 된다(Belsky, 1988). 가족의 삶이 평탄하고 부모의 간섭이 적으면서 동시에 보육의 질이 우수할수록 여아의 경우 더 순응적이며, 남아의 경우에는 실험 과제에 덜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난 Howes와 Olenick(1986)의 연구는 가족 요인과 보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맥락적 조건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적소(ecological niche)'의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NICHD, 1998).

기질과 양육행동, 보육경험 모두를 포함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지만, NICHD(1998)의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보상 혹은 보호 과정(compensatory or protective process)'으로, 아동 또는 가족 특성이 취약하더라도 우수한 보육경험이 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둘째, '자원 상실(lost resources)'의 개념은 아동과 가족 특성이 취약하지 않더라도 보육경험이 부정적이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요인이 취약하여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종합해보면, 다양한 아동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들이 순응 및 불순응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개인적 변인으로는 성, 연령, 그리고 반응성이나 정서조절과 같은 기질이, 환경적 변인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는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이, 보육경험으로는 보육 시작시기와 보육 이용시간, 보육교사의 질 및 행동조절 전략 등이 불순응 행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변인들의 직접적 효과만 다루고 있지만,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여러 맥락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불순응 행동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의 불순응 행동과 그 관련 변인에 성차가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고, 특히 '유기체 특수성' 가설(Wachs & Gruen, 1982)에 근거하여 아동의 기질에 따라 양육행동이나 보육경험과 같은 개인외적 변인과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여, 기질,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과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은 남녀 아동의 불순응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은 상호작용하여 남녀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년 종단연구인 영아보육 프로젝트(박성연 · 고은주, 2003)의 일부로, 1차년도에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의 보육기관을 이용하였던 아동 182명 중, 2차년도에도 계속 같은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20～63개월의 아동 62명과 어머니 및 보육교사 117명[1)]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2차년도 현재 남아 34명(54.8%), 여아 28명(45.2%)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남아 45개월, 여아 42개월이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어머니 평균 연령은 34세였으며,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이 29명(49.8%)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교사, 약사 등의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32명(51.6%)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부터 400만원 이상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한편, 연구대상 아동이 이용하는 보육 집단의 크기는 10명 이상 20명 미만이 31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 미만이 7명(11.3%), 1:5 이상 1:10 미만이 19명(30.6%), 1:10 이상 1:15 미만이 8명(12.9%), 1:15 이상 1:20 미만이 23명(37.1%), 1:20 이상이 5명(8.1%)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 52명(44.4%), 전문대 졸업 40명(34.1%)이었으며, 보육현장 경력은 2년 정도 된 교사가 41명(35.0%)으로 가장 많았지만, 5년 이상 된 교사도 28명(23.9%)이었다. 교사의 대부분(84.6%)이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받고 있었다.

1) 보육교사의 수가 아동의 수보다 많은 이유는 한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수가 한 명에서 세 명까지 아동마다 달랐기 때문이며, 자료의 조사는 117명 모두로부터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육경험 및 불순응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질과 보육 시작시기에 관한 자료는 1차년도에, 양육행동과 주당 보육시간은 2차년도에 어머니가 질문지를 통해 보고하였다. 보육교사의 질과 보육교사의 행동조절 전략은 2차년도에 관찰자가 보육기관을 방문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아동의 불순응 행동은 2차년도에 보육교사가 질문지를 통해 보고하였다.

1) 아동의 기질

기질에 관한 자료는 Goldsmith(1992)의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TBAQ)'를 번안・수정한 영아보육 프로젝트 1차년도의 척도 가운데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불순응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활동성 및 정서성과 관련된 11문항을 선택하였다. 그 가운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을 제외하고 활동성과 정서성 차원에 대해 5문항씩 총 10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활동성'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활동 수준을 의미하며, '정서성'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의 균형 정도를 의미한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하는 Likert식 척도로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적이거나 긍정적 정서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활동성이 α=.74, 정서성이 α=.83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Park, Belsky, Putnam과 Crnic(1997), 이미정(1998)의 연구를 참고로 한 영아보육 프로젝트 2차년도의 양육행동 척도 24문항을 사용하였다. 24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거부, 통제, 과보호, 반응성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4문항을 제외하고 각 요인에 대해 5문항씩 총 20문항을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척도로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요인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요인에 해당하는 양육행동 특성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거부 α=.73, 통제 α=.81, 과보호 α=.76, 반응성 α=.75 수준이었다.

3) 보육경험

본 연구에서는 보육경험 관련 변인으로 보육 시작시기, 주당 보육시간, 보육교사의 질 및 행동조절 전략을 포함하였다.

(1) 보육 시작시기

보육 시작시기는 아동이 최초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보육기관에 맡겨진 시기로서, 1차년도에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주당 보육시간

주당 보육시간은 2차년도 현재 아동이 평일과 주말에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고, 한 주 동안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으로 합산하였다.

(3) 보육교사의 질 및 행동조절 전략

보육교사의 질과 행동조절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NICHD(1996)가 개발한 ORCE(the Observational Record of the Caregiving Environment) 중 일부내용을 사용하였다. ORCE는 관찰자가 보육기관을 방문하여 보육교사와 아동이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44분 동안 관찰하도록 구성된 측정도구이다. 관찰 과정은 우선 10분 단위로 세 번의 상호작용 빈도와 관련된 측정을 하고, 마지막 10분은 질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빈도 측정은 대상 아동의 행동이나 활동, 보육교사 또는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각 항목을 측정하는 것으로 10분 동안 30초 관찰과 30초 기록을 반복하며, 세 번의 10분 관찰 주기 사이에는 2분 동안 아동의 행동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나 임시 질 평정을 하였다. 또한 빈도 측정이 모두 끝나면 10분 동안 교사, 대상 아동, 보육환경에 대한 질 평정을 하였다. ORCE를 통한 관찰은 1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훈련된 대학원생 6명이 관찰자로 투입되었다. 관찰자들은 연구대상 아동들에 대한 관찰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 아동들이 포함되지 않은 보육기관에서 보육교사와 아동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1개월 동안 관찰훈련을 하였으며, 최종 관찰자간 신뢰도는 .80이었다.

보육교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 평정 가운데 8문항을 선택하였으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2문항을 제외하고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보육교사의 질은 보육교사가 연구대상 아동에게 제공하는 고통에 대한 민감성/반응성, 비고통 상황에서의 민감성/반응성, 간섭(역코드 문항), 아동에 대한 긍정적 관심, 아동에 대한 부정적 관심(역코드 문항), 무미건조한 정서(역코드 문항)로 구성된다. 각 요소는 '전혀 그러한 특징이 없다'의 1점부터 '매우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의 4점까지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가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보육교사의 질의 문항간 신뢰도는 α=.83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의 보육교사가 여러 명인 경우는 각각 2회에 걸쳐 평정한 후 평균을 내었으며, 6문항의 평균 점수를 보육교사의 질 점수로 사용하였다.

보육교사의 질이 연구대상 아동에 대한 광범위한 보육교사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라면, 보육교사의 행동조절 전략은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중요시한 척도이다. 행동조절 전략은 ORCE 중 보육교사와 대상 아동 간의 상호작용 빈도 측정 가운데 총 6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아동의 불순응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행동 촉진'과 '행동 제한'만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의 점수는 2회 걸쳐 관찰한 후 평균 점수를 내었으며, 총 행동조절 전략 가운데 행동 촉진의 비율 및 행동 제한의 비율로 하였다. '행동 촉진'은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활동을 제안하거나, 선택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놀이를 확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행동 제한'은 언어적 제한, 물리적 제한, 또는 활동의 제한 등이 포함된다.

4) 아동의 불순응 행동

보육현장에서의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Achenbach, Edelbrock과 Howell(1987)이 제작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Larzelere, Amberson과 Martin(1989)이 제작한 '걸음마기 아동행동 평가척도(Toddler Behavior Checklist: TBC)'를 번안・수정한 윤주화와 이종희(1999)의 교사용 TBC, 그리고 Ladd와 Profilet(1966)이 제작한 '아동행동척도(The Child Behavior Scale: CBS)'를 참고하여 작성된 영아보육 프로젝트 2차년도의 총 33문항 중 불순응 행동과 관련되는 8개의 문항을 선택하였으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을 제외하고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보육교사가 평가하였으며, 한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

사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보육교사가 평가하여 평균 점수를 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불순응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불순응 행동'은 어른의 요구를 잘 따르지 않거나, 거부 또는 반항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말을 듣지 않는다", "화가 날 때, 발버둥치며 뒤로 뻗대며 넘어진다", "교사의 요청에 '싫어요'하고 거부할 때가 많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순응 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α=.88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년 종단연구인 영아보육 프로젝트 자료 중 일부로, 서울 및 경기도 신도시의 보육기관에 다니는 62명의 아동과 어머니 및 117명의 보육교사를 연구에 포함하였다. 아동의 기질과 보육 시작시기는 1차년도(아동의 평균 연령 29개월)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보육 이용시간은 2차년도(아동의 평균 연령 44개월)에 어머니가 보고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2차년도에 보육교사가 아동의 불순응 행동을 질문지를 통해 보고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질과 보육교사의 행동조절 전략은 두 번에 걸친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SPSS 11.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기초분석에서는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남녀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중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사용하였고,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도는 $p<.10$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아동의 기질은 활동성 평균 3.60 (SD=.76), 정서성 평균 4.30(SD=.66)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의 기질을 비교해보면, 활동성의 기질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1.83, df=60, $p<.10$),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의 경우,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평균 2.18(SD=.53),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평균 2.80 (SD=.59)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보호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3.25(SD=.73)였으며, 반응적 양육행동의 평균은 3.80(SD=.48)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한편 반응적 양육행동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t=-3.05, df=60, $p<.01$), 남아의 어머니들보다 여아의 어머니들이 더 반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경험 변인으로는 평균 보육 시작시기가 14.53개월(SD=11.25)이었으며,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2.27, df=60, $p<.05$), 여아가 남아에 비해 일찍 보육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보육시간은 평균 44.58시간(SD=8.96)이었다. 한편, 보육교사의 질의 전반적인 경향은 평균 2.56(SD=.48)이었으며, 보육교사의 행동조절 전략은 아동의 행동을 촉진하는 비율이 평균 .52(SD=.35), 제한하는 비율이 평균 .24(SD=.31)로 나타나, 행동 제한보다 촉진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동의 불순응 행동은 평균 2.26(SD=.71)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불순응 행동의 경향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아와 여아 간에 불순응 행동의

〈표 1〉 전체 및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남녀간 차이 검증 (N=62)

변 인	가능한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t
		전체(N=62)	남아(N=34)	여아(N=28)	
아동의 기질					
활동성	1～6	3.60(.76)	3.75(.80)	3.41(.66)	1.83†
정서성	1～6	4.30(.66)	4.34(.67)	4.25(.65)	.51
어머니의 양육행동					
거부	1～5	2.18(.53)	2.26(.57)	2.08(.47)	1.34
통제	1～5	2.80(.59)	2.86(.63)	2.73(.54)	.86
과보호	1～5	3.25(.73)	3.34(.74)	3.13(.72)	1.14
반응	1～5	3.80(.48)	3.64(.45)	3.99(.45)	-3.05**
보육경험					
보육 시작시기	0～42	14.53(11.25)	17.38(11.62)	11.07(9.91)	2.27*
주당 보육시간	25～67	44.58(8.96)	43.02(8.06)	46.48(9.77)	-1.51
보육교사의 질	1～4	2.56(.48)	2.49(.45)	2.63(.51)	-1.08
보육교사의 행동조절 전략					
행동 촉진	0～1.00	.52(.35)	.47(.36)	.58(.33)	-1.25
행동 제한	0～1.00	.24(.31)	.28(.36)	.20(.25)	.92
불순응 행동	1～5	2.26(.71)	2.25(.67)	2.29(.77)	-.23

†p<.10 *p<.05 **p<.01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연령에 따른 불순응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 남녀 아동의 연령을 2세(36개월 이하), 3세(37～48개월), 4세(49개월 이상)로 구분하고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여아의 경우 유의한 연령차가 나타났으며(F=7.59, df=2,25, p<.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2세 집단과 3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2세 여아가 3세 여아보다 대체로 불순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불순응 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 검증 (N=62)

연령 구분	전 체		남 아		여 아	
	M(SD)	D	M(SD)	D	M(SD)	D
2세	2.69(.54) (N=13)	A	2.30(.42) (N=5)		2.92(.48) (N=8)	A
3세	2.04(.62) (N=27)	B	2.21(.63) (N=16)		1.78(.52) (N=11)	B
4세	2.30(.81) (N=22)	AB	2.26(.82) (N=13)		2.34(.84) (N=9)	AB
F	4.04*		.04		7.59**	

*p<.05 **p<.01

2.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과 남녀 아동의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과 아동의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에 따라 불순응 행동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그와 관련된 변인들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표 1> 참조) 남아와 여아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아동의 기질은 전체 연구대상에서는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상

관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였을 경우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남아는 활동성과 정서성이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r=-.47, p<.01; r=-.55, p<.001), 활동 수준이 높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닐수록 불순응 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여아는 남아의 결과와 반대로 활동성이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r=.39, p<.05),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불순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경우, 전체 연구대상에서는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불순응 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r=.24, p<.10), 이는 특히 남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r=.42, p<.05). 즉, 남아는 어머니가 거부적일수록 불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남아의 불순응 행동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r=-.31, p<.10), 어머니가 반응적일수록 남아가 불순응 행동을 적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표 3〉 아동의 성별,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과 아동의 불순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 (N=62)

변 인	불순응 행동		
	남아 (n=34)	여아 (n=28)	전체 (n=62)
아동의 기질			
활동성	-.47**	.39*	-.10
정서성	-.55***	.21	-.19
어머니의 양육행동			
거부	.42*	.04	.24†
통제	.22	-.02	.11
과보호	-.15	-.05	-.07
반응	-.31†	.03	-.13
보육경험			
보육 시작시기	.04	-.31	-.12
주당 보육시간	.35*	.49**	.43***
보육교사의 질	.22	-.21	-.00
보육교사의 행동조절 전략			
행동 촉진	-.05	-.10	-.06
행동 제한	.23	.29	.23†

†p<.10 *p<.05 **p<.01 ***p<.001

한편, 보육경험 관련 변인 중에서는 주당 보육시간이 남아와 여아 모두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r=.35, p<.05; r=.49, p<.01), 보육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이 불순응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교사의 행동조절 전략 가운데 행동 제한이 전체 연구대상에서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r=.23, p<.10), 보육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제한할수록 아동이 불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녀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

1) 아동의 성과 기질 집단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과 아동의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

아동의 기질은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일 뿐 아니라, 아동의 성에 따라 기질과 불순응 행동의 상관관계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표 3> 참조), 아동의 개인내적 변인인 성과 기질에 따라 양육행동이나 보육경험과 같은 개인외적 변인과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므로 '유기체 특수성' 가설(Wachs & Gruen, 1982)에 근거하여, 남아와 여아 각각 활동성과 정서성을 중앙값을 중심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양육행동 변인 및 보육경험 변인과 불순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4〉 아동의 성과 활동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과 아동의 불순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
(N=62)

변 인	불순응 행동					
	남 아		여 아		전 체	
	활동 수준 저(N=15)	활동 수준 고(N=19)	활동 수준 저(N=18)	활동 수준 고(N=10)	활동 수준 저(N=33)	활동 수준 고(N=29)
어머니의 양육행동						
거부	.57*	.38	.18	-.26	.40*	.09
통제	.25	.10	-.01	.07	.17	.05
과보호	.44	-.39	.00	.03	.18	-.29
반응	-.27	-.29	.05	-.21	-.26	-.04
보육경험						
보육 시작시기	-.02	.03	-.04	-.72*	.07	-.35†
주당 보육시간	.45	.39	.24	.61†	.26	.57***
보육교사의 질	.24	.20	.13	-.40	.08	-.10
보육교사의 행동조절 전략						
행동 촉진	.10	-.07	-.27	.48	-.21	.10
행동 제한	.47	.17	.45†	-.25	.47**	.03

†p<.10 *p<.05 **p<.01 ***p<.001

그 결과, 활동성 집단에 따른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과 불순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아는 활동 수준이 낮은 경우 어머니가 거부적일수록 불순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57, p<.05). 활동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어떠한 변인도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표 4> 참조).

여아의 불순응 행동은 활동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행동보다는 보육경험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활동 수준이 낮은 여아는 보육교사가 행동을 제한하는 전략을 사용할수록 불순응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r=.45, p<.10). 활동 수준이 높은 여아의 경우에는 보육 시작시기가 이를수록(r=-.72, p<.05), 주당 보육시간이 많을수록(r=.61, p<.10) 불순응적이었다(<표 4> 참조).

한편, 아동의 정서성 집단에 따른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과 불순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남아의 불순응 행동은 주당 보육시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정서가 낮은 남아는 어머니가 거부적(r=.60, p<.01), 또는 통제적이거나(r=.42, p<.10), 반응성이 떨어질수록(r=-.50, p<.05) 불순응적이었다. 긍정적 정서가 높은 남아는 주당 보육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불순응적인 경향이 있었다(r=.48, p<.10).

그러나 여아의 불순응 행동은 양육행동 변인보다는 보육경험 변인들과 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정서가 낮은 여아는 주당 보육 이용시간이 많을수록(r=.62, p<.01), 보육교사가 행동을 제한할수록(r=.58, p<.05) 불순응적이었다. 긍정적 정서가 높은 여아는 어떠한 변인도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아동의 성과 정서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과 아동의 불순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 (N=62)

변 인	불순응 행동					
	남 아		여 아		전 체	
	긍정적 정서 저(N=19)	긍정적 정서 고(N=15)	긍정적 정서 저(N=16)	긍정적 정서 고(N=12)	긍정적 정서 저(N=35)	긍정적 정서 고(N=27)
어머니의 양육행동						
거부	.60**	-.00	.05	-.02	.37*	-.03
통제	.42†	-.26	.12	-.16	.29†	-.22
과보호	-.08	-.33	-.16	.19	-.07	-.05
반응	-.50*	.17	-.15	.25	-.35*	.29
보육경험						
보육 시작시기	.03	-.03	-.38	-.20	-.12	-.20
주당 보육시간	.34	.48†	.62**	.29	.47**	.41*
보육교사의 질	.11	.16	-.40	.22	-.16	.30
보육교사의 행동조절 전략						
행동 촉진	-.01	-.04	-.21	.20	-.14	.04
행동 제한	.42	-.13	.58*	-.06	.48**	-.13

†p<.10 *p<.05 **p<.01

2) 남아의 불순응 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대한 기질,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질(활동성 또는 정서성 상・하) × 양육행동(거부, 통제, 과보호, 또는 반응성 상・하) × 주당 보육시간(상・하)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분석은 유의한 관계를 보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하되,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진 보육의 질을 통제하였으며, 모든 집단은 남녀 아동 각각 중앙값을 중심으로 상, 하로 나누었다. 그 결과, 남아의 불순응 행동에 대해서는 8개의 가능한 삼원변량분석 가운데, 두 가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의 불순응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남아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남아의 불순응 행동에 대한 활동성, 통제적 양육행동 및 주당 보육시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듯이, 주당

〈표 6〉 기질(활동성), 양육행동(통제) 및 주당 보육시간에 따른 남아의 불순응 행동의 삼원변량분석 (N=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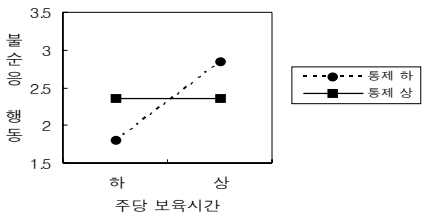
변 량 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활동성(A)	.76	1	.76	2.34
통제적 양육행동(B)	.05	1	.05	.15
주당 보육시간(C)	1.57	1	1.57	4.82*
A×B	.03	1	.03	.09
A×C	.02	1	.02	.06
B×C	.14	1	.14	.43
A×B×C	1.03	1	1.03	3.15†
오 차	7.49	23	.33	
전 체	169.44	32		

†p<.10 *p<.05

보육시간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4.82, p<.05). 또한 활동성(A)과 통제적 양육행동(B), 주당 보육시간(C)이 상호작용하여 남아의 불순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15, p<.10).

이에 활동성(A), 통제적 양육행동(B) 및 주당 보육시간(C)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활동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통제적 양육행동과 주당 보육시간의 상하 집단을 조합한 네 집단의 불순응 행동의 평균을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활동성이 낮은 집단만 그 결과가 유의하였으며(F=5.09, df=3,14, p<.05), Duncan 사후검증 결과 네 집단 가운데 특히 통제적 양육행동이 낮으면서 보육시간이 적은 집단($\bar{X}$=1.80)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낮으면서 보육시간이 많은 집단($\bar{X}$=2.85) 간의 불순응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그림 1>에서 보듯이, 활동 수준이 낮은 남아는 어머니가 통제적인 경우에는 주당 보육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 불순응 행동에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가 통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당 보육시간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현저히 불순응적이었다.

한편, 정서성, 반응적 양육행동 및 주당 보육시간에 따른 남아의 불순응 행동에 대해 살펴



〈그림 1〉 활동성이 낮은 남아의 불순응 행동에 대한 양육행동(통제) 및 주당 보육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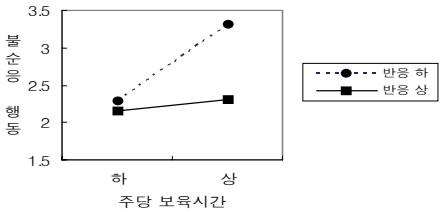
〈표 7〉 기질(정서성), 양육행동(반응성) 및 주당 보육시간에 따른 남아의 불순응 행동의 삼원변량분석 (N=34)

변 량 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정서성(A)	1.91	1	1.91	7.09*
반응적 양육행동(B)	.51	1	.51	1.90
주당 보육시간(C)	1.64	1	1.64	6.08*
A×B	.52	1	.52	1.91
A×C	.07	1	.07	.26
B×C	.00	1	.00	.00
A×B×C	.84	1	.84	3.12†
오 차	6.21	23	6.21	
전 체	169.44	32		

†p<.10 *p<.05

보면, <표 7>에서 보듯이, 정서성(A)과 주당 보육시간(C)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7.09, p<.05; F=6.08, p<.05). 또한 정서성(A), 반응적 양육행동(B) 및 주당 보육시간(C)이 상호작용하여 불순응 행동을 예측하였다(F=3.12, p<.10).

이에 정서성(A), 반응적 양육행동(B) 및 주당 보육시간(C)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긍정적 정서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 반응적 양육행동과 주당 보육시간의 상하 집단을 조합한 네 집단의 불순응 행동 평균을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긍정적 정서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만 그 결과가 유의하였으며(F=2.58, df=3,14, p<.10), Duncan 사후검증 결과, 어머니의 반응성이 낮으면서 보육 이용시간이 많은 집단($\bar{X}$=3.31)과 나머지 집단($\bar{X}$=2.15, 2.29, 2.31) 간의 불순응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어머니가 반응적인 경우에는 주당 보육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 불순응 행동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가 반응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당 보육시간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현저히 불순응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 정서성이 낮은 남아의 불순응 행동에 대한 양육행동(반응성) 및 주당 보육시간의 상호작용 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관련된 변인들, 특히 아동의 성과 기질 특성에 따라 불순응 행동 관련 변인들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이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20～63개월 된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 및 보육교사로부터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보육현장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와 여아의 불순응 행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순응적이라고 보고한 연구들(곽혜경・조복희, 1999; Chen 등, 2002; Kuczynski & Kochanska, 1990; Maccoby & Jacklin, 1974; Schneider-Rosen & Wenz-Gross, 1990)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을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제한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은 아니므로, 보육경험이 불순응 행동의 성차를 줄일 수 있는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2세 여아가 3세 여아보다 불순응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는 'terrible two'로 알려진 것처럼 걸음마기의 행동을 다루기 어렵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로 뒷받침될 수 있다(Edwards, 1995; Maccoby, 1990; Schaffer & Crook, 1980; Schneider-Rosen & Wenz-Gross, 1990). 즉, 생후 2년이 되면 운동 및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율성을 나타내게 되고, 부모나 보육교사는 이처럼 자기주장이 강해진 걸음마기 아동에게 행동기준을 가르치려고 하게 되므로 불순응 행동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질 중에서는 남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지닐수록 불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가 강한 아동은 성인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특히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좌절하기 쉽고, 이는 분노의 감정을 일으켜 불순응하도록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tifter 등, 1999). 한편, 활동성과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 남아는 활동적일수록 순응적이었지만, 여아는 활동적일수록 불순응적이었다. 이는 부모의 사회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들이 높은 활동 수준을 보이는 딸에게는 제한적이거나 처벌적인 반면, 동일한 활동 수준의 아들에게는 수용적이고 오히려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Lerner, 1993).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남아의 경우에만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어머니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반응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남아들은 보육교사에게 불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거부된다고 느끼게 되면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는 '내적 작업모델'(Bowlby, 1973)을 형성하여 어머니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불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3)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로부터 거부하는 태도를 배워 성인의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형태로 불순응할 수도 있으며, 또는 관심끌기의 수단으로 불순응 행동을 보일 수 있다(Hartup, 1958). 반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반응적으로 대하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다른 성인에 대한 순응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뿐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한 불순응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Feldman과 Klein(2003)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즉, 가정에서의 사회화는 가정 밖의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아와 달리 여아의 경우에는 어떠한 양육행동 변인도 불순응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어머니인 반면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의 대상은 보육교사로 그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행동이 불순응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즉, 순응 및 불순응 행동은 개인내적 행동 특성이라기보다는 대인관계적이고 상황-특수적인 특성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Sternberg 등, 1991), 여아에게는 보다 직접적인 관계의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순응 및 불순응 행동,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순응 및 불순응 행동 간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육경험 관련 변인 중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주당 보육시간이 불순응 행동과 가장 강하게 관련되었다. 이는 어린 시기에 주당 20시간 이상의 보육을 경험하면 아동이 불순응하기 쉽다고 보고한 Belsky(1988)의 고찰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은 주당 평균 45시간이나 보육기관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보육의 위험 한계 시간으로 알려진 20시간의 두 배 이상 되었으므로, 그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어머니와의 불안정 애착 관계로 이어지거나(김숙령, 1997; Belsky & Rovine, 1988; Farber & Egeland, 1982; Londerville & Main, 1981), 어머니로 하여금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어(Belsky, 1997) 아동이 불순응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제한할수록 아동이 불순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통제할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응 행동을 나타낸다는 결과(Braungart-Rieker 등, 1997; Feldman & Klein, 2003; Kochanska & Aksan, 1995; Rothbaum & Crockenberg, 1995)를 보육교사의 행동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의 불순응 행동의 관계로 일반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아동의 성과 기질에 따라 불순응 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기질에 관계없이 보육경험보다는 거부, 통제, 반응과 같은 양육행동이 불순응 행동을 예측하였다.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보육 시작시기, 보육시간, 보육교사의 행동조절 전략과 같은 보육경험이 불순응 행동과 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남아의 경우에는 보육을 경험하더라도 그동안 어머니와 유지해 온 관계가 순응 및 불순응 행동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며, 여아의 경우에는 양육행동보다는 보육경험이 순응 및 불순응 행동 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보육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쉽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김숙령, 1997; Belsky & Rovine, 1988; Howes & Olenick, 1986)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보육경험 요인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이나 보육교사의 학력, 경력 또는 훈련 여부 등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아동의 보육 시작시기나 보육시간, 보육교사의 행동조절 전략 등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보육경험 특성에 초점을 둔 것에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보육경험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기질에 따라서는, 활동성이 낮은 아동들은 남아의 경우 거부적 양육행동, 여아의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행동 제한과 같이 주로 관계적인 특징을 지니는 변인들이 불순응 행동과 관련되는 반면, 활동성이 높은 아동들의 경우에는 보육 시작시기, 보육 이용시간과 같이 구조적인 특징을 지니는 변인들이 불순응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비교적 차분하여 주의집중을 잘하므로 주위에서 제공되는 양육이나 통제의 영향을 쉽게 받는 반면, 활동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부모나 보육교사의 영향력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히 여아의 경우 보육 시작시기가 이르거나 보육시간이 많은 것과 같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물리적인 환경의 구조 측면에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긍정적 정서의 기질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정서가 낮은 경우에는 대체로 관계적 변인들이 불순응 행동과 관련되는 반면, 긍정적 정서가 높은 경우에는 구조적 변인이 불순응 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정서가 부족한 남아들에게는 어머니가 거부 또는 통제를 하거나 반응적이지 않을 때 불순응 행동이 발달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긍정적 정서가 낮으면 쉽게 좌절 혹은 분노하기 쉬우므로,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유기체 특수성' 가설(Wachs & Gruen, 1982)을 지지하는 결과로, 동일한 양육행동 또는 보육경험이라도 아동의 활동성과 정서성의 기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이는 모든 아동들에게 획일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아동 각각의 특성을 존중하여 그에 조화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Sanson & Rothbart, 1995)을 일깨워 주는 결과이다.

넷째,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대한 기질,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아의 경우 '활동성×통제적 양육행동×주당 보육시간' 및 '정서성×반응적 양육행동×주당 보육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활동성이 낮은 남아는 어머니가 통제적인 경우에는 주당 보육시간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어머니가 통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당 보육시간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현저히 불순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가족의 특성이 취약하지 않더라도 보육경험이 부정적이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NICHD(1998)의 '자원상실'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정서를 지닌 남아는 어머니가 반응적인 경우에는 주당 보육시간이 많고 적음에 따라 불순응 행동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가 반응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당 보육시간이 적을 때보다 많을 때 불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지닌 모든 자원들이 부정적이면 상승효과를 나타내어 불순응 행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육환경 자체의 영향보다는 보육환경이

다른 위험 요인들과 결합되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한다는 '이중 위험 모델(dual risk model)'(Belsky & Rovine, 1988)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아동이 보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분명히 위험 요인이 되지만 어머니의 반응성이 보육경험으로 인한 위험성을 완화시켜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머니는 아동이 최초로 관계를 맺는 대상이므로 어머니를 통해 형성된 타인에 대한 신뢰는 가정 뿐 아니라 가정 이외의 환경에서도 사회화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주당 보육 이용시간 및 보육교사의 행동 제한 전략은 아동의 불순응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불순응 행동은 성과 기질에 따라 관련 변인들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활동 수준이 낮거나 부정적 정서가 강한 남아에게는 어머니가 거부 또는 통제하지 않고 반응적으로 대해야 하며, 여아에게는 보육교사가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아야 순응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긍정적 정서가 강한 남아나 활동 수준이 높은 여아는 보육시간이 많을 때 불순응하게 된다. 한편, 남아의 경우는 활동 수준이 낮고 어머니가 통제적이지 않더라도 보육시간이 많으면 불순응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간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부정적 정서가 높고, 어머니가 반응적이지 않고, 보육시간이 많으면 상승효과를 나타내어 아동이 불순응적이기 쉬우나, 동일한 조건에서 어머니가 반응적이면 순응적인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관찰과 질문지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 일반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적은 사례 수로 인해 보육의 질 척도에서 과정적인 질 요인만을 살펴보았지만, 보육 집단의 크기,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의 교육 및 훈련, 교사의 안정성과 같은 구조적인 질 요인을 포함한다면, 보육의 질과 아동의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불순응 행동에 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불순응 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규명하고, 특히 생태학적 관점에서 기질, 양육행동, 보육경험 등 다양한 맥락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 각자의 특성을 존중하여 그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과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곽주영 · 이 영(1997). 보육교사 행동의 질적 수준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35(2),* 385-399.

곽혜경 · 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1),* 165-176.

김미정(2001). 어머니의 양육가치, 양육목표, 양육신념 및 조정행동과 유아의 순응행동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숙령(1997). 영유아기의 탁아 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5-18.

박성연 · 고은주(2003). 영아보육 및 가족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91-106.

윤주화 · 이종희(1999). 걸음마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보육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

(2), 171-186.

이미정(1998). 3세 여아의 행동억제와 그 관련변인 -영아기 정서성, 부모의 내향성,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Achenbach, T. N., Edelbrock, C., & Howell, C. T. (1987).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of the behavioral/emotional problems of 2- and 3-year-ol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629-650.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Y: Holt.

Barkley, R. A.(1997). *Defiant children: A clinician's manual for assessment and parent training.* New York: Guilford Press.

Belsky, J.(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35-272.

Belsky, J.(1990). Parental and nonparental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85-903.

Belsky, J.(1997). The effects of nonmaternal care on child development. 1997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워크샵 자료집. 1-5.

Belsky, J., & Eggebeen, D.(1991). Early and extensive maternal employment and young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83-1110.

Belsky, J., & Rovine, M.(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infant-parent attachment security. *Child Development, 59,* 157-167.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Y: Wiley.

Braungart-Rieker, J., Garwood, M. M., & Stifter, C. A. (1997).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The roles of maternal control and child tempera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411-428.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hen, X., Li, W., Chen, H., & Liu, M.(2002). Noncompliance and child-rearing attitudes as predictors of aggressive behaviour: A longitudinal study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 225-233.

Crockenberg, S.(1987).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 964-975.

Edwards, C. P.(1995). Parenting toddler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pp.41-63). Mahwah, NJ: Erlbaum.

Farber, E. A., & Egeland, B.(1982).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out-of-home care for infants in a low income population. In E. Zigler & E. Gordon(Eds.), *Day care: Scientific and social policy issues*(pp.102-125). Boston: Auburn House.

Feldman, R., & Klein, P. S.(2003). Toddlers' self-regulated compliance to mothers, caregivers, and fathers: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soci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9,* 680-692.

Forehand, R., & Long, N.(1991). Prevention of aggression and other behavior problems in the early adolescent years.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317-330).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Goldsmith, H.(1992).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Oregon, Eugene, OR.

Grusec, J. E., & Goodnow, J. J.(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s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19.

Hartup, W. W.(1958). Nurturance and nurturance-

withdrawal in relation to the dependency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29,* 191-201.

Howes, C., & Olenick, M.(1986). Family and child care influences on toddler's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7,* 202-216.

Kochanska, G., & Aksan, N.(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Kopp, C. B.(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Kuczynski, L., & Kochanska, G.(1990). Development of children's noncompliance strategies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98-408.

Ladd, G. W., & Profilet, S. M.(1996). The child behavior scale: A teacher-report measure of young children's aggressive, withdrawal,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1008-1024.

Larzelere, E. M., Amberson, A. J., & Martin, G. T. (1989). The toddler behavior checklist: A parent-completed assessment of social-emotional characteristics of young preschoolers. *Family Relations, 38,* 418-425.

Lerner, J. V.(1993). The influence of child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n parent behaviors. In T. Luster, &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pp.101-120).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Londerville, S., & Main, M.(1981). Security of attachment, compliance, and maternal training methods in the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81-299.

Maccoby, E. E.(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Maccoby, E. E.(1992). The role of parent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An historical over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08-1017.

Maccoby, E. E., & Jacklin, C. N.(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Macrae, J. W., & Herbert-Jackson, E.(1976). Are behavioral effects of infant day care program specific? *Developmental Psychology, 12,* 269-270.

Martin, J. A.(198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onsequences of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A microanalytic approa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3, Serial No. 190).

Matlock, J. R., & Green, V. P.(1989). Cooperative behaviour and peer competence in day care and home-reared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44,* 1-4.

McMullen, M. B.(1999). Achieving best practices in infant and toddler care and education. *Young Children, July,* 69-76.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269-306.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8). Early child care and self-control, compliance, and problem behavior at twenty-four and thirty-six months. *Child Development, 69,* 1145-1170.

Park, S. Y., Belsky, J., Putnam, S., & Crnic, K.(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Parpal, M., & Maccoby, E. E.(1985). Maternal responsiveness and subsequent child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6,* 1326-1334.

Patterson, G. R., DeBaryshe, B.,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Phyfe-Perkins, C.(1981). *Effects of teacher behavior on preschool children: A review of research.* Washington D. C.: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Power, T. G.(1985). Mother- and fater-infant play: A development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1514-1524.

Power, T. G., & Parke, R. D.(1986). Patterns of early socialization: Mother-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331-341.

Prodromidis, M., Lamb, M. E., Sternberg, K. J., Hwang, C. P., & Broberg, A. G.(1995). Aggression and noncompliance among Swedish children in centre-based care, family day care, and home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8,* 43-62.

Rothbart, M., & Derryberry, D.(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pp.37-86). Hillsdale, NJ: Erlbaum.

Rothbaum, F., & Crockenberg, S.(1995). Maternal control and two-year-olds' compliance and defi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8,* 193-210.

Rubenstein, J. L., Howes, C., & Boyle, P.(1981). A two year follow-up of infants in community-based day 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209-218.

Sanson, A., & Rothbart, M. K.(1995).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pp.299-321). Mahwah, NJ: Erlbaum.

Schaffer, H. R., & Crook, C. K.(1980). Child compliance and maternal control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54-61.

Schneider-Rosen, K., & Wenz-Gross, M.(1990). Patterns of compliance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Child Development, 61,* 104-112.

Schwarz, J. C., Strickland, R., & Krolick, G.(1974). Infant day care: Behavioral effects at preschool age, *Developmental Psychology, 10,* 502-506.

Shaw, D. S., Keenan, K., & Vondra, J. I.(1994). Developmental precurs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Ages 1 to 3.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55-364.

Sternberg, K. J., Lamb, M. E., Hwang, C. P., Broberg, A., Ketterlinus, R. D., & Bookstein, F. L.(1991). Does out-of-home care affect compliance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4,* 45-65.

Stifter, C. A., Spinrad, T. L., & Braungart-Rieker, J. M.(1999). Toward a developmental model of child compliance: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70,* 21-32.

Thornburg, K. R., Pearl, P., Crompton, D., & Ispa, J. M.(1990). Development of kindergarten children based on child care arrangement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27-42.

Vandell, D. L., Henderson, V. K., & Wilson, K. S. (1988).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with day-care experiences of varying quality. *Child Development, 59,* 1286-1292.

van der Mark, I. L.,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2002). The role of parenting, attachment, and temperamental fearfulness in the prediction of compliance in toddler girl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 361-378.

Wachs, T. D., & Gruen, G.(1982). *Early experience and human development.* New York: Plenum.

Whiting, B. B., & Edwards, C. P.(1988). *Children of different worlds: The formation of social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년 12월 31일 투고 : 2005년 2월 19일 채택